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만전 모두 함께 만드는 진안홍삼축제

최훈식 장수군수, 스마트팜 건설 현장 점검·차질없는 사업 추진 당부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8기 최훈식 군수의 최우선 공약이자 과제인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건설 상황 및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전문인력 양성과 성공적인 정착지원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관련 영농기술 확보와 임대농장 운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내년도 12월 완공 예정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장수읍 두산리 813번지 일원에 88,293㎡ 규모로 조성되며, 온실 3동과 자원재생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최 군수는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앞으로 전라북도 미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래농업을 선도할 중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스마트농업 활성화 주력

과수 경쟁력 향상·일손 부족 해소 위해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 보급

무주군이 과수 경쟁력 향상과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복숭아와 포도, 블루베리 등 노지 과원 3.4ha에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을 보급(총 사업비 1억 원)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관수·관비 시설은 스마트폰으로 조작이 가능해 사람이 직접 과원에 나가지 않더라도 물이나 비료주기가 가능하다.

또 토양 속 수분 상태를 감지하는 장치에서 신호 값을 주면 관수 체계가 관수량과 관수 적정시간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물을 주는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일손을 더는 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액체 비료 혼합 장치에서 '전엽기'와 '비대기', '착색기'에 필요한 비료가 자동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농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과일의 생육도 좋아진다.

무주군 실천면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박범식 씨는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데 밭에 직접 물을 댈 때는 물의 양은 알 수가 적지만, 하루에 몇 번을 줘야 하는지 모든 것을 짐작으로 했

었다"며 "스마트 장비 설치 후에는 일손 걱정도 덜고 편하기도 하지만 모든 과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수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사과 과원 3.3ha, 8곳에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 보급을 완료한 바 있다.

무주군청 기술연구과 소득작목팀 강혜경 팀장은 "스마트농업은 고령화 등 생산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단비가 되고 있다"며 "일손부족이 현안문제가 된 시점에서 스마트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적용해 나갈지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장수군은 지난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훈련은 6년 만에 재개된 전국민 참여 훈련으로, 장수군 내 지정대피소와 행정·공공기관에서 실시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주변 대피소 대피 및 비상시 행동 요령, 응급조치

교육 등이 이뤄졌으며, 특히 장수군 시범대피소인 장수군청에서는 최훈식 군수가 직접 주민과 청사 직원들을 대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훈련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위기 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성공적인 축제 개최 위해 군민·기관단체 등 적극 동참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 진안! 2023 진안홍삼축제!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 군민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축제에 홍삼을 비롯한 풍성한 살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하고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홍삼축제 홍보를 위해 진행하는 매주 금요일 빨간티 입기에도 많은 군민 및 단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북인삼조합의 대형 홍보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체육회, 북부상가, 진안읍 민간협회의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다양한 현수막 게시에 동참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고 이외에도 많은 군민들이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삼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K-Water), 전북은행, NH농협 진안군지부에서도 전국에 홍삼축제를 알리기 위



진안홍삼축제 먹거리부스 식품교육 모습

해 홍보물 제작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명식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군민과 기관단체들이 축제준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군민의 열원을 담아 열리는 2023 진안홍삼축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홍삼을 주제로 열린다.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 그리고 정성급 가수들이 펼치는 화려한 트로트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장애인체육회, 불링 양궁 단기 스포츠 체험 진행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는 지난 11일과 23일 남원 숲불링장과 임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에서 불링과 양궁 단기 스포츠 체험을 진행했다.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는 농·어촌 등 도서벽지 시설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미수혜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하나이다.

이번 강좌는 장수군과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체육기금, 북권기금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담당자와 장애인, 보호자, 인솔자 등이 함께 참가해 관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불링과 양궁 체험을 진행하며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은 물론 새로운 여가생활을 접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농업인 안전교육 안전지도자 육성

무주군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비롯해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25일까지 6개월·면 농업인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스근골격계와 뇌혈관 질환,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비롯해 '△농약 중독 예방(농약 안전 사용법), △안전보호구 사용(시엔 및 실습)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다.

또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에게 손목 보호대와 농작업 안전 의자, 진드기 기피제를 지원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대상자를 '농업인 안전지도자'로 임명해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과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인 업무상 재해의 이해와 △안전 재해보험, △농작업 직업성 질환 사례 등이 소개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24일 오후 3시 30분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을지연습 결과 종합보고 및 강평'을 진행했다.

진안군, 을지연습 종합보고회 열어

진안군은 24일 오후 3시 30분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을지연습 결과 종합보고 및 강평'을 진행했다.

이날 을지연습 결과 종합 보고 및 강평에서는 2023년 을지연습에 대한 결과보고 공유와 함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을지연습은 전·시·사면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 진행된 훈련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직제 편성

연습, 전시창설기구운영, 도상연습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진안군, 한국수자원공사, 군부대,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중요시설(용담댐) 방호를 위한 대테러 훈련을 진행하고, 23일에는 공습대비 민방공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연습을 통하여 각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을지연습 기간 동안 24시간 근무체계를 가동해주시는 유관기관 및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